

을 한해 100만명이 찾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지역문화산업 대표 관광지로 '우뚛'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 2016년 한 해 10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명실상부한 지역대표 관광지로 자리 매김하며 군산 근대문화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근대문화 중심도시 군산의 특화박물관으로 2011년 9월 30일 개관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2013년부터 유료운영으로 전환해 그해 관람객 22만명, 2014년 42만명, 2015년에는 80만명에 이어 올해에는 100만명을 돌파해 군산 원도심 활성화와 근대문화산업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는 평을 받았다.

이처럼 박물관 운영이 성공한데에는 다양한 기획전과 특별전 등 볼거리 확충에 노력하고, 맞춤형 역사·문화스토리를 제공하고자 교육 체험 제공 등 다각도로 노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박물관은 전국 최고의 근대문화유산 체험을 위해 군산을 찾는 관광객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매주 월요일 휴관 해오던 운영방식을 바꾸어 지난 8월부터 매주 월요일 정상개관을 실시하고, 가장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는 토요일에는 야간개관을 통해 관광객에게는 좀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문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기획·특별전 등 열어 볼거리 확충에 총력 펼쳐 맞춤형 역사·문화스토리 제공 위한 교육체험 등도 벌여

특히 역사관과 전시실에는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시대별 유물과 시민들이 기증해 준 5000여점의 유물을 포함한 1만여 점의 유물들이 있다. 근대생활관에는 1930년대 11개 건물을 주체별로 재현해 당시의 시대상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2014년부터 박물관과 인근 근대시설물인 조선은행, 18은행 등을 전시장으로 활용해 통합된 근대문화 테마단지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별 건물들의 연계성을 위해 '스텝투어'를 운영, 벨트화지역의 8개 건축물을 방문하여 스텝투어를 찍어가면서 근대 건축물을 학습하고 여행의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근대역사문화의 중심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박물관은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고, 내일을 향하는 군산의 희망찬 군무를 상징하는 현대적 4층 규모의 건물로, 내부 시설로는 해양물류 역사관, 근대생활관, 어린이 체험관 등을

재현하고 그 안에 전시와 체험 그리고 교육을 담아냄으로써 찾는 이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또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박물관 체험 학습지를 제작해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하고, 박물관 학교 및 전래민속놀이, 공예체험교실 등 다양한 역사문화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박물관의 사회교육기능을 활발히 한 점도 가족단위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은 주요 원인으로 평가된다.

▲다양한 기획전시
기획전 및 특별전은 박물관 벨트화지역에서 연 20여회 개최되는데 박물관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기획전시는 매분기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역전의 명수, 군산야구展'을 시작으로 지역인물 조명 시리즈인 '포도의 명인 남곡 최석환展' 그리고 지역 근대사를 조명한 '1950 군산 6월의 꽃 기획전'을 전시한 바 있다.

올해는 독립유공자 특별전 '자랑스러운 군산의 독립영웅들', 안중근 의사의 생애와 하얼빈 의거, 더불어 안중근 의사와 뜻을 같이한 독립운동가를 조명한 '대한인 안중근과 대한의 자

손들', 세계적 문화이자 국제인 이었던 최치원의 위상을 느낄 수 있는 '9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인 최치원', 독도박물관과 공동기획한 소중한 우리영토 독도에 관한 '근대도시 군산, 독도와 함께하다'를 진행했다.

▲박물관 시간여행 근대문화공연
박물관의 다양한 근대문화공연은 군산의 근대역사문화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특화된 박물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박물관은 마당놀이와 인형극, 거리문화공연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특화된 문화공간으로 꾸며나가고 있다.

근대 마당놀이 수탈전은 시민참여 문화공연이자 박물관 대표 문화상품으로 2012년에 창단된 박물관 연극 자원봉사단체인 군박패(군산 근대역사박물관놀이패)가 참여해 일제강점기 수탈과 저항의 도시였던 군산항을 배경으로 우리 조상들의 고통과 한(恨)을 노래와 춤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수탈전은 매주 토요일 오후 박물관 광장 차 없는 거리(무궁화 거리)에서 펼쳐져 관광객들에게 군산관광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박물관 근대문화장터와 거리문화공연 운영

매주 토요일 근대문화 공연 및 체험활동을 결합한 박물관 개관장터를 개최하여 시민과 관람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며,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다.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BUY 가맹점 제도 체결
박물관은 관광객 유치에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지 방문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박물관을 다녀간 방문객이 관람권을 제출할 시 가맹점 등록업체에서 판매 금액(현금10%, 카드7%)을 할인 받을 수 있는 BUY 가맹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BUY 가맹점 운영을 통하여 군산의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가속화시키고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는 별도의 할인 혜택을 부여해 박물관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우리 민족의 아픔이 배어 있는 원도심 근대문화유산을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재조명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박물관으로써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전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화가 오씨’

사람의 얼굴로 표현하는 인간의 삶



‘과수원 송씨’

허대웅의 개인전 'Face, 타인의 얼굴'이 28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열린다.

허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타인의 삶을 성찰하고 이에 대한 각각의 해석을 지닌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인간 삶의 본질과 현대인들의 삶을 단편적으로 재현하고자 했다.

작가는 얼굴이라는 표현 대상을 관조하는 마음으로 그려내며 이를 통해 각각의 자아세계와 잠재의식들을 들여다 볼 수 있게끔 작업했다.

작품 속 대부분 인물의 시선처리는 정면

▶도립미술관, 허대웅 개인전 'Face 타인의 얼굴' 오늘부터

정·측면으로 인물 시선처리 작품 제목으로 정체성 표현

과 측면으로 보여 진다. 정면은 화면 밖을 강하게 응시하고 있으며 측면은 먼 곳을 바라보거나 어느 한 지점을 의식적으로 강렬하게 보고 있다. 그림 속 인물들의 시선을 따라 가만히 응시하고 싶다면 현실과 의식 속의 나 자신이 아닌, 무의식

속에 잠재해있는 본연의 모습이 투영되기도 한다. 이는 꿈을 갈망하는 희망적인 모습일 수도, 거칠고 허망한 삶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작품 제목은 인물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작품 (가택점 주인공), (과수원 송씨), (화가 오씨) 등을 통해 그들의 삶의 과정이나 그에 따른 역경 등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다양한 감정과 만날 수 있다.

작가는 전시를 통해 솔직한 자아의 모습을 표현하고 내면의 어두운 상처와 그림자를 솔직히 드러내며, 이를 직시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치유와 위로를 전한다.

작가는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를 졸업하였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7번째 개인전이며, 작가는 다수의 단체전 및 기획 초대전에서 작품 활동을 펼쳤다. 온고를 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제4회 경향미술대전 운영위원·인사동 475번지 전 회원·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내년도 교육 수강생 모집

도민들의 건전한 여가 생활과 능력 개발 지원을 위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신수미)는 2017 제1기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내년 1월 2일부터 3월까지 석 달간 진행되며 자격증 취득과정, 건강문화복지 지원과정 등 총 4개 과정70개 강좌가 개설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코딩지도사, 생활환경만들기, 프리젠테이션 등 7개 과목을 신설해 다양한 내용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과목 중 코딩교육은 컴퓨터적인 사고와 논리를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미국·영국·이스라엘 등은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초등생의 코딩교육 의무화가 예상됨에 따라 코딩교육 지도사 양성을 위한 강좌를 신규로 개설하였다.

또 드론 날리기, 밸리댄스 초콜릿 만들기 등 가족과 함께하는 원데이 클래스와 재직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컴퓨터 자격증, 취업준비 준비 및 자신감 향상을 위한 스피치 교육 등을 야간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은 도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강생 모집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이며 응시원서는 홈페이지(www.jwcre.kr)에서인 접수 가능하다.

**문의 063)254-3813. /정해은 기자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12월 28일>

<p>▶쥐띠 48년생: 금전적인 이득이 있을 운이나 적극 진행하라. 60년생: 정신적으로는 편안하지 않으나 결과적으로는 좋다. 72년생: 식욕에 걸성이 들고 인덕이 따르는 운이다. 84년생: 뜻밖의 수확이 있으니 포기하지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따를것이다.</p>	<p>▶소띠 49년생: 손재수가 따르니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있고 실물수를 주의하라. 61년생: 하고자 하는 일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라. 73년생: 평소 익숙했던 것이라도 실수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라. 85년생: 작은 일은 성취 가능하나 조심스럽게 진행하면 이루어질 것이다.</p>	<p>▶호랑이띠 50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충돌이 발생하는 운이다. 62년생: 사고수가 있으니 원형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 74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일찍 움직이고 지나친 욕심은 금물임을 명심하라. 86년생: 신체적 컨디션이 좋지 않다.</p>	<p>▶토끼띠 51년생: 문서로 인한 금전지출은 줄으나 다른 투자나 투기는 삼가는 것이 좋은 운이다. 63년생: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일이 생긴다. 75년생: 금전적으로 이득이 따르는 운. 87년생: 하고자 하는일에 구설수가 따른다.</p>
<p>▶용띠 52년생: 아랫사람에게 경사가 따르는 운이다. 64년생: 먼저 배풀고 진행하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 76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니 감정에 빠져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88년생: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마라. 상대와 반목할 뿐이다.</p>	<p>▶뱀띠 53년생: 타인과의 화합에 좋은 운이다. 65년생: 감정에 치우치면 일을 그러치게 되니 매수를 냉정하게 처리하라. 77년생: 다른사람의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89년생: 결과 속이 다음에 유의하라.</p>	<p>▶말띠 54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 66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으나 자신의 감정에 의한 것이나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78년생: 어려운 일이 있다면 자신심을 버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 90년생: 미뤄왔던 공부를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날이다.</p>	<p>▶양띠 55년생: 감정적으로 기운이 좋은 운이나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은 화를 부르는 주의하라. 67년생: 사소한 일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생긴다. 79년생: 금전적으로 손재수가 따른다. 91년생: 어려움이 있을때에는 손윗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다.</p>
<p>▶원숭이띠 56년생명신: 손아래 사람에게 도움 받을 일이 생기니 권위적인 언행은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을 만든다. 68년생: 하고자 하는일에 막히는 일이 발생한다. 80년생: 좋은 일하고 빨 늦는 격. 나서지 않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92년생: 건강이 좋지 않은 운이나 원형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p>	<p>▶닭띠 57년생: 구설수와 시비가 따른다. 69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이득을 얻게 된다. 81년생: 미뤄왔던 문서 정리나 문서를 주고받기에 좋다. 93년생: 정신이 맑지 않은 운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p>	<p>▶개띠 46년생: 겉은 화려하나 실속이 없으니 내실을 다지는것에 신경써라. 58년생: 지출이 심해지는 운이다. 70년생: 모든일을 혼자서 감내해야 하지만 쉽게 잘 풀린다. 82년생: 이성과 함께 일을 도모하기에는 좋으나 오해를 사는 일이 생길듯.</p>	<p>▶돼지띠 47년생: 가족들과의 불화가 생기는 때. 59년생: 받으려고 하지말고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기고 상황도 자신에게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되는 운이다. 71년생: 여성이라면 발늦게 다니면 흉한일이 발생한다. 83년생: 남성이라면 일로 인해 힘들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라.</p>